

33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롬 4장, 갈 3장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47장 (주님 한 분 밖에는)

오늘 배울



1.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압니다.
2.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압니다.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7~18)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인줄 알지어다 (갈 3:6~7)



을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오해하곤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행위’와 관계 없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로서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칭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믿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약 사백삼십 년 뒤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으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만일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야 한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8)

who, contrary to hope, in hope believed, so that he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what was spoken,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Ro 4:18)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롬 4:17~22)?

- 2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믿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써 봅시다(롬 4:23~25).

- 3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여 써 봅시다.

같은 점	
다른 점	

- 4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행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적어보고 교제해 봅시다.

구 분	믿음으로 행함
학교 친구 ○○○ 전도	하루에 한번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말해준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롬 4:3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롬 4:17

화

갈 3:6

↑

갈 3:7

↓

히 11:17

↓

약 2:23

↓

약 2:26



참나무와 호박의 성장 기간

어느 날 명문 대학에 아들을 등록시키려는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이 수업 과정표를 읽어 내려가다가 의아한 모습으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조금 짧게 할 수 없을까요? 나는 늙었고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 사업의 후계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학장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짧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그 학생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느냐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은 한 그루의 참나무를 만들어내는 데 20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나 호박 한 개를 만드는 데에는 두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학장은 대답했습니다.

단축이라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크게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질문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렁이의 맨밑에 빠치우리라 (사 14:12~15)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이 강국이 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함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전입니다). 특히 이사야 14장 12~15절 말씀은 사단의 기원과 타락의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란 단어는 KJV(흠정역 성경)에서는 ‘루시퍼(Lucifer)’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뜻은 ‘아침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3~17)

이 예언은 두로(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된 후 역사에서 사라진 도시)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상업도시로 넘치는 부를 이룩한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 교만해 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벨론과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 당할 것이라고 예언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두로의 배후에서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든 사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두 예언을 종합하여 볼 때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였습니다. 아마도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